

# 가계저축규모의 결정요인

## The Determinants of Family Savings

상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양 세 정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이 영 호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Sangmyung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Se-Jeong Yang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Lecturer : Young-Ho Lee

### 〈 목 차 〉

- |             |              |
|-------------|--------------|
| I. 서론       | 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I. 요약 및 시사점 |
| III. 연구모델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              |

### 〈Summar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to family savings. Family savings were defined in four ways such as monthly savings, average propensity to save, financial assets, and net financial assets.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dealt with were family income, household size, number of earners, age, occupation, education, housing tenure, and urbanization. The data used in the study was Survey of Family Finance 1990. The main statistical method was multiple regression.

Family income was found to the most important variable to determine four family saving variables holding other characteristics constant. Also, household size ha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family savings. Two-earner households were found to have higher average propensity to save and less financial assets compared to single-earner households. For monthly savings and average propensity to save, the households with forties and fifties household head tended to be less than others, while financial assets tended to increase with the age of household head. Compared to salary earner

households, blue-colored households had significantly lower average propensity to save, and the households with professionals had significantly higher financial assets. The college-graduated households tended to have less monthly savings than the elementary-graduated households. Also, the housing renters were found to have more monthly savings and higher average propensity to save, compared to the housing owners.

## I. 서론

가정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주택구입, 자녀의 결혼, 노후의 생계등 가족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규모의 소비지출이 필요하다. 소비지출은 여러 경로를 통해 획득되는 가계소득에 의해 가능하며, 이러한 소비지출행위를 통해 가정 구성원의 욕구충족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족생애주기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소비지출이 항상 소득수준과 일치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소득과 소비간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가정운영상의 장기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예상외의 지출요인이 발생한다거나 가장의 실직등 가정의 소비지출과 소득수준자체가 지니는 불확실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대비 역시 안정된 가계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이러한 가계재정의 불완전성 및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가계저축이다.

이렇듯 가계저축의 목적은 미래의 재정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재정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계저축은 이러한 가정경제적 측면에서 중요성에서 나아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도 그 의의를 더한다. 국민경제의 생산능력향상은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계저축은 이러한 투자행위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의 역할을 수행하기때문이다.

가계저축에 대한 관심은 국가경제개발의 재원충당이라는 과제와 함께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야기되어왔으며 이들은 시계열자료를 통하여 가계저축행태를 분석하여왔다. 그들의 관심은 경제성장율, 이차율, 물가변동율등 경제정책적 변수들의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어졌으며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성장이 일정계도에 들어섰고 따라서 경제정책 또한 정부주도의 계획수행이 아닌, 각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관심은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에 주어지고 있으며 특히 가계저축에 대한 연구 또한 가계의 저축행태에 관한 미시적 고찰이 요구된다 하겠다.

대부분의 가정은 보다 안정된 미래를 위하여 저축을 증대하기를 소망한다(양세정 & 강미나, 1993). 그렇다면 과연 어떤 가정이 보다 저축을 많이 하며, 가정의 어떤 특성이 이들의 저축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가계저축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는 도시가계의 저축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저축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저축교육을 실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가계의 저축결정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앞으로의 가계저축증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가계운영자에게는 각기 가정이 처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가계저축행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가계저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시계열자료에 의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가구특성에 따른 가계저축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의해 수행되어왔다. 다음은 횡단면자료를 사용한 가계저축행태 관련 실증연구들을 결정요인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요약한 것이다.

헤퍼란(Hefferan, 1979)은 소득원천의 수 및 형태가 가계저축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저축을 특정기간동안의 유동자산의 증가분과 특정기간동안의 실질순자산(내구재를 포함하는 총저축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이를 다시 물가상승률로 조절)의 증가분으로 정의하고 저축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단일소득원의 가계보다는 취업인이 2명 이상인 가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자산을 더 높은 비율로 증가시키는 반면, 유동자산보유량은 다수취업자 가구가 단일취업인가구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유동자산증가분의 경우 가계소득 및 가구주 직업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자산에 대하여는 취업인수, 가계소득 및 가구주직업이 유의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헤퍼란(1982)은 새로운 가계저축개념을 도입하여 가계저축의 유형과 결정요인을 연구하였다. 가계저축변수로는 일정한기간동안 실질 순자산의 증가분과 가계의 전체순투자를 사용하였다. 순투자에는 가계의 순자산에 연금지불비, 보험료, 인적자원에 투자되는 교육비나 서적비를 포함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조사대상가구는 소득적정도가 높을수록, 유동자산이 많을수록, 임차가구에 비해 자가가가,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저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가 가계순투자인 경우 이들 변수외에 취업인수가 많을수록, 두번째 소득원자의 기여도가 적을수록,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가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저축관련 횡단면자료분석 연구들이 행해져 왔으나, 초기연구들에서는 가구특성별 저축성향에 대한 단순비교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최근 가계자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재무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가계저축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다소 활발해지는 경향이다.

채정숙(1980)은 대구시 가구를 중심으로 주부들의 저축에 대한 인식 및 저축행위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가구의 과반수이상인 소득의 30%이내에서 저축을 하며, 가구특성별 저축성향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주부학력, 소득, 주부연령, 가족수가 저축성향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설희(1983)는 서울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특성이 가계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카이자승검증 결과 가구주 연령, 주부 학력, 결혼지속년수, 월수입, 미래소득에 대한 전망등이 가계저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 36-40세인 집단에서 가계저축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에서 대체로 낮은 가계저축율을 보였다.

양정선(1991)은 체계론에 근거하여 도시가계의 저축 및 투자행동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부분으로 가계저축의 결정요인을 다루었다. 서울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인 가계저축변수로는 저축율, 총저축액 및 월평균저축액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은 모든 저축변수와 정적 관계를 가지며, 특히 월평균저축액을 결정짓는 주요변수로 나타났다. 가계저축률은 자가가구에 비해 무주택가구에서 보다 높았으며, 이 밖에 주관적 변수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경기전망이 낙관적일 때, 미래지향적 가치를 보유할 때, 자신의 상대소득수준을 낮게 인지할 때일수록 가계저축률이 높았다. 총저축액은 가계소득과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였으며, 월평균저축액은 가족수, 주관적경기전망, 가계관리능력, 상대소득인지도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명훈(1985)과 이계식(1986)은 전국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료에 근거하여 저축결정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이명훈은 1982년 도시근로자가계의 횡단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한계저축성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결과 한계저축성향은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가구주의 연령이 45세 미만인 경우가 그 이상인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입주형태별로는 전세가계, 월세가계, 자가의 순서로 한계저축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부급에 가입하고 있는 가계의 한계저축성향이 더 높았다.

이계식은 1984년 국민은행의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의 기초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저

축보유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계부채가 있는 경우에 가계저축잔고는 많았으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계저축잔고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직가구에 비해 일용근로자가구가, 소도시저주 가구에 비해 서울 및 직할시 거주가구의 저축잔고가 적었으며, 자가 및 전세가구가 사글세가구등과 비교하여 저축잔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금 마련을 목적으로한 가계의 저축액이 여타의 목적으로 저축하는 가계에 비해 약2.3배가 많았으며, 도시화 규모와 가계저축 규모와는 負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가계저축의 결정요인으로는 가계소득, 교육수준, 직업, 가족생애주기(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주택보유여부등이 여러 연구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인수, 유동자산, 두번째 소득원자의 기여도(Hefferan, 1982), 도시화정도, 부채잔고여부(이계식, 1986), 저축목적(이명훈, 1985; 이계식, 1986)등이 일부연구에서 나타났고, 미래의 소득에 대한 전망, 주관적 가치전망, 가치지향성, 상대소득 수준인지, 가계관리능력등 주관적 변수가 가계저축규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백설희, 1983; 양정선, 1991).

### Ⅲ. 연구모델

#### 1. 가계저축의 개념

소득은 사용용도에 따라 크게 소비와 저축,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볼 때, 저축이란 소득 중에서 소비를 위해 쓰여진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계가 경제주체인 경우, 가계가 처분소득중 소비지출되지 않은 부분을 가계저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득과 소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저축은 그 개념과 측정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헤퍼란은 가계저축에 관한 두 연구(1979, 1982)에

서 가계저축을 일정기간동안 가계금융자산의 증가분으로 정의하였으며, 보다 포괄적인 정의로 이에 기타 모든 자산 및 부채구조까지를 고려한 純자산의 증가분으로 규정한 바 있다. 가계저축을 논함에 있어 헤퍼란이 정의한 純자산의 증가분을 다루는 것이 가장 이론적일 수 있으나 이 정의의 경우 동일가구에 대해 적어도 두 기간에 걸쳐 조사한 패널자료(panel data)가 뒤받침되어야 함과 동시에 자산변수 등 측정이 용이하지 않은 자료를 수집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저축개념인 가계금융자산에 초점을 두며, 우리나라 가계저축에서의 私人금융저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불입금액 및 사채를 준금액도 포함한 것을 가계저축으로 정의한다.”

#### 2. 가계저축규모 결정요인 모델

가계는 현재소득중에서 현재소비를 하고 남은 부분을 저축을 하게 되며, 이러한 저축행동은 현재소득을 미래시점에서 소비(미래소비)하겠다는 의사결정을 전제로 한다.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이용하기도 하며 이는 미래의 소득을 현재의 시점으로 앞당겨 소비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축모델도 일반적인 소비함수에 근거하여 도출할 수 있다.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의사결정을 분석한 기간 선택이론에 의하면 어느 시점에서의 소비는 소득, 이자율, 가격변동 및 가계선호의 함수로 표현된다(Bryant, 1990).

$$\text{즉, } C=f(Y, r, P, T\&P) \quad (1)$$

(C: 소비, Y: 소득, r: 이자율, P: 가격변동, T&P: 가계선호)

이때 이자율 및 가격변동은 일정 시점에서 조사된 횡단면자료를 분석할 경우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지역등에 따른 다소의 변동은 가계선호를 반

1) 최근 들어 가계저축은 제도금융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기는 하나 私人금융이 가계저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양세정과 강미나, 1993).

영하는 가구특성변수에 의해 간접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Bryant, 1986). 따라서 가계저축은 가계소득 및 가계선호에 의한 함수형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 = g(Y, T\&P) \quad (2)$$

한편 저축에 대한 가계선호는 현재소비 및 미래소비간의 소비자의 시간선호를 반영한다. 소득과 소비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가계는 저축 또는 차입을 통하여 자원재분배의 필요성을 느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동기는 가계의 현재 및 미래의 소비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가족생애주기상 현재소비에 대한 수요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소비에 대한 수요가 현재시점에서의 저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미래소비에 대한 수요가 미래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도 현재시점의 저축규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편 현재시점에서의 풍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등 가구원의 현재와 미래 소비의 선호형태 또한 저축규모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가계저축에 대한 가계선호는 가구의 특성변수에 의해 대변될 수 있는데(Ferber, 1973),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수, 취업자수, 가족생애주기(가구주 연령), 가구주 직업, 교육정도, 주거상태, 도시화정도를 포함한다.

가구원수는 가계소비지출규모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따라서 가계소득수준이나 취업자수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는 가계저축수준에도 주요한 관련요인이 될 것이다. 취업자수는 다양한 소득창구에 따른 가계소득의 안정성을 나타내며, 2인이상의 경우 주부취업가구를, 취업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 은퇴가구이거나 또는 재산소득가구를 대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취업자수의 특성은 가계소비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저축이란 한 시점에서의 가계소득과 소비요구 사이의 격차를 조절함으로써 장기적 가계재정운영의 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생활사건은 다르게 나타나며 생활사건은 소비요구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가계저축은 가족생애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가족생애주기를 대변하는 변수로 가구주의 연령을

택하고 있다.(이명훈, 1985; 이계식, 1986외).

직업은 소득의 안정성과 관련지어 가계저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봉급생활자가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수취하는 반면, 일용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낮고 불규칙적인 소득수준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며, 자영업자와 자유직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고소득이면서 불규칙적인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이러한 소득수취패턴이 가계재정계획수립상 또는 가계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결과적으로 가계저축 수준에도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정도 역시 가계저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하스트롬과 던싱(Hafstrom & Dunsing, 1972)의 소비와 교육관계를 다룬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에 따라 가계관리의 계획수립 및 소비생활의 효율성이 달라지며 이는 가계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한편 양세정과 이성민(1992)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소비수준과 교육수준과의 정적 관계를 발견하면서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생활추구 욕구가 가계의 소비지출 수준을 높게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논리들은 교육수준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여 우회적으로 가계저축에 대해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저축규모 자체와의 관련성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한다.

가계재정계획 설정에서의 주택마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주거상태는 가계저축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자의 주택소유에 대한 열망은 지대하며 이에 따라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 전세나 월세가구들의 주택보유를 위한 대비는 절실할 수 있다. 특히 전세가구의 저축성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월세가구의 경우 일정금액이 주거비용으로 지출되므로 저축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화정도 역시 가계의 소비지출수준과 관련됨에 따라 가계저축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대도시의 경우 다양한 상품에의 노출이 초과적 소비지출을 유도할 것이며 대도시거주가구일수록 가계생활필요의 가계내 생산비율이 적어짐에 따라 시장에서

의 구매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소비지출의 증가를 수반하므로 대도시거주가구일수록 가계의 저축보유액이 적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밖에 부채잔고여부, 저축목적 변수등이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에는 부채잔고를 차감한 순수저축보유액을 별도로 다루고 있으므로 부채잔고여부변수를 제외하였으며, 저축목적변수는 주택보유여부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연구모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미래의 소득에 대한 전망, 주관적 가치전망, 가치지향성, 상대소득 수준인지, 가계관리능력등 주관적 변수들은 관련연구들(백설희, 1983; 양정선, 1991)에서 평균저축률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에 조사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실증분석 모델에서 고려할 수 없었다.

#### IV. 연구방법

##### 1.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1990년도 「가계금융이용실태」의 기초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1980년 이래 매년 전국의 40개 도시, 200개 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3단계 층화 추출방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면접을 통하여 가계의 금융자산 및 부채 보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이다(국민은행, 1991). 본 연구에 사용된 1990년 자료는 원래 조사대상이 3,000가구였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되는 가구를 제외한 2,941가구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가구특성이 다른 집단간의 가계저축규모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각 집단간의 저축규모를 단순 비교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목적인 가계저축규모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분석을 위하여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사전적으로 검증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SPSS PC\*를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의 종속변수인 가계저축규모변수로는 가계의 월저축액, 평균저축율, 저축보유액 및 순수저축보유액등 4가지 형태를 사용하였다. 평균저축율의 경우 월소득대비 월저축액의 비율을 산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저축보유액은 가계의 은행 및 비은행권 저축보유액 및 유가증권, 사채빌려준 돈, 계부은 돈 전액을 포함한다. 순수저축보유액은 가계의 저축보유액에서 부채보유액을 차감함으로써 얻어지는데, 이때 가계부채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금액, 사채쓴 금액 및 계단 금액이 포함되어있다.

가계저축규모에 대한 결정요인으로는 연구모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계소득, 가구원수, 취업자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직업, 교육정도, 주거형태 및 도시화정도를 선정하였다.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는 연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취업자수, 가구주 직업, 교육정도, 주거형태, 도시화정도는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가구주 연령은 이론적으로 가계저축의 주요한 변인인 가족생애주기를 대변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연속변수와 가변수 두 가지 형태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월저축액과 평균저축성향의 경우 연령계층을 10년단위로 묶어 계층별 가계부담정도를 비교하였으며, 부채보유액과 순수저축보유액은 자산축적이라는 특성상 연령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크기가 연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변화형태가 선형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령' 및 '연령의 제곱' 두 변수를 사용하였다.<sup>2)</sup>

2) 두가지 형태의 연령변수 각각을 사용하여 4가지 종속변수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월저축액 및 평균저축률의 경우는 연령의 가변수형태가, 저축보유액과 순수저축보유액은 연령 및 연령제곱을 사용한 경우가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언급된 추론과 일치하였다.

가계소득변수의 경우 '가계소득' 및 '가계소득의 제곱'의 두 변수를 연구모델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가계저축규모와 가계소득간의 관계가 非선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취업자수는 취업자가 1인인 가구를 비교집단으로 하여 0인가구와 2인가구를 가변수로 고려하였다. 이는 취업자수가 0인 경우 퇴직가구를 포함하는 무직가구를 대변하고 2인이상인 가구의 경우 맞벌이가구를 대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주거상태는 自家, 전세, 월세로 三分하였으며, 기타 가변수의 범주는 原자료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상을 종합한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가계저축규모에 대한 추정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式(1)은 월저축액 및 평균저축률이, 式(2)는 저축보유액 및 純저축보유액에 대해 사용되었다.

$$\begin{aligned} SH1^1 = & a_1 + a_2YH + a_3YH^2 + a_4SIZE + a_5EARN1 + a_6EARN2 \\ & + a_7AGE1 + a_8AGE2 + a_9AGE3 + a_{10}AGE4 \\ & + a_{11}OCCU1 + a_{12}OCCU2 + a_{13}OCCU3 \\ & + a_{14}OCCU4 + a_{15}ED1 + a_{16}ED2 + a_{17}HOUS1 \\ & + a_{18}HOUS2 + a_{19}CITY1 + a_{20}CITY2 \quad \dots \text{式}(1) \end{aligned}$$

$$\begin{aligned} SH1^2 = & a_1 + a_2YH + a_3YH^2 + a_4SIZE + a_5EARN1 + a_6EARN2 \\ & + a_7AGE + a_8AGE^2 \\ & + a_9OCCU1 + a_{10}OCCU2 + a_{11}OCCU3 \\ & + a_{12}OCCU4 + a_{13}ED_1 + a_{14}ED_2 + a_{15}HOUS1 \\ & + a_{16}HOUS2 + a_{17}CITY1 + a_{18}CITY2 \quad \dots \text{式}(2) \end{aligned}$$

여기에서 SHi = 가계저축액 또는 저축율; YH = 가계소득; SIZE = 가구원수; EARN1, EARN2 취업자수의 더미변수(0인, 2인이상 vs. 1인); AGE1 ~ AGE4: 가구주 연령의 더미변수(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vs. 20대); AGE: 가구주 연령; OCCU1 ~ OCCU4: 가구주직업의 더미변수(일용근로자, 자유직업자, 자영업자, 기타 vs. 봉급자); ED1, ED2: 교육정도의 더미변수(중·고졸, 대졸이상 vs. 국졸이하); HOUS1, HOUS2: 주거상태의 더미변수(전세, 월세 vs. 自家); CITY1, CITY2: 도시화정도의 더미변수(직할시, 중소도시 vs. 서울)를 나타낸다.

## 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징(〈표 1〉 참조)

조사대상가구는 월평균 290,759원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구의 평균저축률은 31.8%였다. 저축보유액은 평균 6,483,656원이었고 저축보유액에서 부채보유액을 제외한 純부채보유액은 저축보유액의 30.9%가 적은 4,482,470원으로 이들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809,575원이었으며 평균 가구원수는 4.21명이었다. 가구당 평균 취업자수는 1.32명으로, 71.2%에 해당하는 2,093가구가 1인 취업자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2.04세였으며 이들의 절반이상(51.5%)이 봉급생활자였다. 또한 대부분의 가구주가 중·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대졸자는 24.0%였고, 54.9%가 自家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34.5%가 서울지역가구였고 직할시, 기타중소도시가 각각 30.9%, 34.6%였다.

### 2. 가구특성에 따른 가계저축규모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표 2〉 참조)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거의 모든 설명변수들의 집단간 저축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저축규모 및 저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월저축액의 경우 48만원이하 소득을 가지는 가계가 평균 78,000원의 저축을 하는데 반해 1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가계는 9배가 넘는 72만 2천원을 매달 저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월저축액과 저축보유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평균저축율은 3인가족, 4인가족, 2인가족의 순서로 나타나 특별한 패턴은 보이지 않았고 단지 집단간 차이는 인정되었다.

취업자수가 2인이상인 가구는 월저축액과 평균저축률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월39만원의 저축액과 34.5%의 높은 저축성향을 보였다. 반면 고령층 또는 재산소득자들이 다수 포함되어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표 1)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가구수	평균 또는 %	표준편차
월저축액			290,759원	470,667
평균저축률			0.318	0.272
저축보유액			6,483,656원	13,764,367
純저축보유액			4,482,470원	14,050,595
가계소득	평균		809,575원	694,596
	48만원이하	591	20.1 %	
	60만원이하	714	24.3 %	
	80만원이하	641	21.8 %	
	100만원이하	486	16.5 %	
	101만원이상	507	17.2 %	
가구원수	평균		4.21명	1.241
	2인	212	17.2 %	
	3인	586	19.9 %	
	4인	1,106	37.6 %	
	5인	634	21.6 %	
	6인 이상	403	13.7 %	
취업자수	평균		1.32명	0.656
	0인	56	1.9 %	
	1인	2,093	71.2 %	
	2인	633	21.5 %	
	3인	124	4.2 %	
	4인	27	0.9 %	
	5인	7	0.2 %	
	6인	1	0.0 %	
가구주 연령	평균		42.04세	10.316
	29세 이하	252	8.6 %	
	30-39세	1,091	37.1 %	
	40-49세	881	29.9 %	
	50-59세	544	18.5 %	
	60세 이상	173	5.9 %	
가구주 직업	봉급생활자	1,515	51.5 %	
	일용근로자	255	8.7 %	
	자유직업자	151	5.1 %	
	자영업자	926	31.5 %	
	기타	94	3.2 %	
교육정도	국졸 이하	318	10.8 %	
	중·고졸	1,917	65.2 %	
	대졸 이상	706	24.0 %	
주거상태	자 가	1,615	54.9 %	
	전 세	885	30.1 %	
	월 세	441	15.0 %	
도시화정도	서울	1,015	34.5 %	
	직할시	909	30.9 %	
	기타중소도시	1,017	34.6 %	

- 1) 평균저축율은 소득이 높은 2가구를 제외한 2,939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 2) 가계소득의 집단분류는 가계소득에 대해 5분위로 나눈 결과임. 즉 가계소득 48만원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함.

취업자가 없는 가구가 저축보유액 및 純저축보유액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가구주의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평균저축율이 높아 20대와 30대 가구의 경우 36%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가구주 연령이 낮은 가구의 경우 가족생애주기상 형성기, 확장기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마련을 위하여 가계소득의 많은 부분을 저축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축적된 저축보유액은 노년층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가계의 금융자산인 純저축보유액의 경우 20대가구가 평균 267.4만원을, 60대이상가구는 888.3만원이었다.

가구주의 직업은 자유직업집단에서 저축보유액 및 純저축보유액이 가장 높은 1,230.9만원, 948.6만원으로, 이는 전체 평균치 값의 두배에 해당한다. 또한 월저축액도 가장 높아서 매월 51.4만원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규칙한 소득규모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이 예상되는 일용근로자가구의 경우 평균저축률이 22.4%로 기타가구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으며, 저축보유액 및 純저축보유액 각기 221.8만원, 100.0만원에 불과하였다. 가구주가 퇴직한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가구의 경우 18.8%라는 가장 낮은 저축률을 보였으나 純저축보유액은 자유직업자가구 다음으로 높은 634.3만원이었다.

또한 가구주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평균저축율 및 저축보유액이 높았다. 가구주가 대졸인 가구의 경우 평균저축율은 33.4%였으며, 특히 純저축보유액에 비해 저축보유액에 있어 집단간 차이가 보다 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대졸가구가 활발하게 가계대출을 활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월세보다는 전세가구가, 전세보다는 자가구구의 저축보유액이 높았으나, 평균저축율은 전세, 자가, 월세가구의 순서로 나타남으로써 이들 전세가구의 주택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저축행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저축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월세집단은 저축율과 저축보유액 모두 세 집단중 가장 낮았다.

도시화정도별로 비교해 보면 모든 저축규모변수에 있어 서울지역거주 가구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저축보유액부분에 있어서는 타지역거주가구에 비



〈표 2〉 가구특성별 가계저축규모의 분산분석 결과

(단위: 천원, %)

설명 변수	구 분	월저축액		평균저축률		저축보유액		純저축보유액	
		평균	F	평균	F	평균	F	평균	F
가 계 소 득	48만원이하	78		21.0		2,164		1,168	
	60만원이하	168		30.9		3,657		2,231	
	80만원이하	242	191.75**	33.1	40.94**	5,337	84.34**	3,322	50.54**
	100만원이하	344		35.8		8,383		5,997	
	101만원이상	722		40.3		15,145		11,544	
가 구 원 수	2 인	174		30.1		3,868		2,804	
	3 인	276		35.8		5,491		4,006	
	4 인	295	5.27*	33.9	12.93**	6,822	3.99*	4,696	1.49
	5 인	297		29.4		6,788		4,480	
	6인이상	353		24.9		7,892		5,477	
취 업 자 수	0 인	78		13.1		7,900		7,172	
	1 인	259	28.69**	31.3	17.49**	5,943	5.62*	3,927	5.95*
	2인이상	390		34.5		7,812		5,759	
가 구 주 연 령	29세 이하	246		36.9		3,983		2,674	
	30 - 39세	295		36.1		5,762		3,807	
	40 - 49세	300	0.72	29.4	17.80**	6,812	7.54**	4,409	1.49
	50 - 59세	285		27.0		7,199		5,395	
	60세 이상	303		25.2		10,751		8,883	
가 구 주 직 업	봉급생활자	265		33.0		5,622		3,839	
	일용근로자	137		22.4		2,218		1,000	
	자유직업자	514	22.26**	33.2	15.02**	12,309	17.75**	9,486	11.26**
	자영업자	351		33.6		8,010		5,490	
	기 타	177		18.8		7,535		6,343	
교 정 육 도	국졸 이하	182		23.8		4,634		3,157	
	중·고졸	276	22.6**	32.5	15.79**	5,439	34.24**	3,663	19.13**
	대졸 이상	380		33.4		10,153		7,303	
주 상 거 태	월 세	227		28.8		4,135		2,955	
	전 세	274	7.19**	37.0	23.28**	5,042	20.26**	3,677	7.11**
	自 家	317		29.8		7,915		5,341	
도 정 시 화 도	서 울	324		32.5		7,761		5,275	
	직할시	271	3.86*	31.48	0.43	5,665	6.80**	4,090	2.47
	중소도시	276		31.47		5,939		4,043	

\*P<0.05, \*\*P<0.01에서 통계적으로 有意.

- 1) 평균저축율은 소득이 零인 2가구를 제외한 2,939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 2) 가계소득의 집단분류는 가계소득에 대해 5분위로 나눈 결과임.

해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서울지역거주가구의 저축보유액은 평균 776.1만원인 반면, 직할시거주가구는 566.5만원이었다.

### 3. 가계저축규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3〉 참조)

월저축액의  $R^2$ 값은 0.7720으로 고려된 가구특성 변수들에 의한 설명력이 고려된 저축규모변수 중 가장 높았으며, 저축보유액과 평균저축률은 0.3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축보유액의 경우 특성상 축적된 자산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과거로부터의 축적된 저축보유액은 과거의 가구특성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의 가구특성의 이 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되어졌을 것이다. 평균저축률은 가치관이나 생활양식같은 주관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양정선, 1991) 이 부분은 보다 포괄적 데이터베이스(data base)의 필요성과 함께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한편 설명변수들의  $t$ 값에 근거한 변수의 유의성여부는 가계소득, 가구원수, 취업자수, 가구주 연령등이 보다 설명력이 높은 변수로 판명되었으며, 나머지 변수의 경우 1, 2개 저축규모변수에 대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변수의 경우 가계소득과 가계소득제공 두 설명변수가 가계저축변수 모두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계소득과 가계저축규모간의 2차함수적 관계를 뒷받침하였다. 두개의 가계소득변수의 회귀계수의 부호를 살펴보면 가계저축규모변수들은 모두 가계소득이 높음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율은 월저축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가구원수가 1명 증가함에 따라 월평균가계저축은 32,631원씩 감소하고 평균저축률은 3.45% 떨어져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의 소비수요가 커짐에 따른 가계소비성향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가구원은 당기의 저축규모뿐 아니라 저축의 축적분인 가계의 純저축보유액에도 부정적 영향력을 미쳐 가구원수가 1인 증가함에 따라 純저축보유액은 455,337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는 자산축적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계소득등 여타 가구특성이 일정한 상태에서 취업자수는 취업자가 1인인 가구에 비해 2인이상인 가구의 평균저축률은 3.64% 높은 반면, 저축보유액과 純저축보유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인이 다수인 가구의 경우 주택마련등 특정 가계목표의 성취를 위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높은 평균저축률이 높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한편 부정관계를 보인 純저축보유액의 경우 기존 축적자산이 없는 가계가 이를 충원하기 위하여 축적자산이 많은 가계에 비해 여타 가구원들의 취업욕구가 보다 높기때문 일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결과(백설희, 1983)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계저축행태는 가족생애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월저축액은 점차 낮아져서 자녀교육비가 절정을 이루는 50대가구의 경우 20대가구에 비해 월70,833원이 적은 저축을 하였다. 평균저축률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관련양육비지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노년기가구의 경우 자산축적의 목적이 약화됨에 따라 저축의욕이 낮아지는 것도 한 요인일 것으로 추측된다. 60세이상 가구의 평균저축률은 20대가구에 비해 8.48%의 격차를 보였다. 반면 저축보유액과 純저축보유액은 연

3) 가계소득과 가계소득제공변수의 회귀계수에 의한 저축함수의 형태를 추정해보면, 월평균저축액은 두 변수 모두 양의 부호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인 반면, 나머지 평균저축률, 저축보유액, 순저축보유액 변수의 경우 가계소득제공변수의 부호는 음이고, 가계소득변수의 부호는 양으로 위로 볼록한 모양의 이차함수 형태를 가진다. 그러나 월평균저축액의 최저점은 가계소득이 음인 점에 존재하므로 현실적 가계소득영역내에서는 줄곧 양의 기울기를 나타내게 되며, 기타가계저축변수의 경우는 최고점이 가능한 소득영역보다 월등히 큰 소득수준에서 존재하므로 현실적 가계소득영역에서는 줄곧 양의 기울기에 있다.

〈표 3〉 가계저축규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 (t-값)

설명변수	월저축액	평균저축률	저축보유액	純저축보유액
가계소득	0.598** (54.696)	1.662E-7** (13.395)	13.951** (24.560)	12.183** (20.083)
(가계소득) <sup>2</sup>	1.458E-9* (2.453)	-6.024E-15** (-8.935)	-3.077E-7** (-9.966)	-2.321E-7** (-7.039)
가구원수	-32631** (-8.329)	-0.0345** (-7.774)	-369070 (-1.813)	-455337* (-2.094)
취업자수: 0인	-81539 (-1.855)	-0.0917 (-1.833)	2024379 (0.881)	2488171 (1.014)
2인	-2090 (-0.199)	0.0364** (3.067)	-1981708** (-3.666)	-1549201** (-2.683)
가구주: 30~39세	1119 (0.070)	0.00044 (0.024)	---	---
연령 40~49세	-45980** (-2.687)	-0.0530** (-2.729)	---	---
50~59세	-70833** (-3.812)	-0.0761** (-3.612)	---	---
60세 이상	-31715 (-1.274)	-0.0848** (-3.003)	---	---
가구주 연령	---	---	-459699** (-2.887)	-492534** (2.896)
(가구주 연령) <sup>2</sup>	---	---	5816** (3.318)	6414** (3.426)
가구주: 일용근로	3098 (0.188)	-0.0535** (-2.858)	-181341 (-0.211)	-413321 (-0.451)
직업 자유직	6307 (0.323)	-0.0197 (-0.887)	2452289* (2.418)	1713659 (1.582)
자영업	-1917 (-0.192)	0.0031 (0.273)	247871 (0.479)	-308061 (-0.557)
기 타	28656 (0.819)	-0.0404 (-1.019)	-25278 (-0.014)	-322963 (-0.168)
교육: 중·고졸	-14536 (-0.990)	0.0212 (1.275)	-470078 (-0.614)	-292393 (-0.358)
정도 대졸이상	-83368** (-4.803)	-0.0208 (-1.055)	255750 (0.283)	-16345 (-0.017)
주거상태: 전 세	47353** (4.575)	0.0550** (4.686)	35667 (0.067)	984808 (1.720)
월 세	30842* (2.358)	-0.0065 (-0.438)	130207 (0.192)	1088351 (1.503)
도시화정도: 직할시	9238 (0.886)	0.0076 (0.638)	-550796 (-1.018)	112514 (0.195)
중소도시	20565* (2.016)	0.0153 (1.324)	17649 (0.033)	367261 (0.649)
상 수 항	-27847 (-1.035)	0.3361** (11.022)	6203580 (1.782)	5483533 (1.475)
R <sup>2</sup>	0.7720	0.1249	0.2813	0.2134
adjusted-R <sup>2</sup>	0.7706	0.1192	0.2771	0.2088

\*P<0.05, \*\*P<0.01에서 통계적으로 有意.

- 1) 평균저축율은 소득이 높은 2가구를 제외한 2,939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 2) 본 회귀분석에서 더미변수를 사용한 경우 각 변수에 대한 비교집단은 아래와 같음. 취업자 수 (취업자 수 1인); 가구주 연령 (29세이하); 가구주 직업 (봉급생활자); 교육정도 (국졸이하); 주거상태 (自家); 도시화정도 (서울).

령변수에 대해서는 유의한 수준의 부적 관계, 연령  
제곱변수는 정적 관계를 나타내어 예상하였듯이 2차  
함수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종속변수 각각  
에 대한 함수형태는 각기 39.5세, 38.4세에서 보유액  
이 최저치를 보였으며 이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축적된 자산형태로서의 금융자  
산의 성격을 나타냈다.

직업에 따라 가계저축액 및 저축률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직업에 따라 소득의 원천 및 안  
정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평균저축률  
은 일정한 소득원이 있는 봉급생활자가구가 일용근  
로자가구에 비해 높았고 저축보유액은 봉급생활자가  
구에 비해 자유직업자가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의 차이로 높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볼 때 가구주 직  
업간 월저축액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고려된 가구특성변수중 가계저축  
규모와 가장 적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  
는 가구주의 교육정도이다. 가구주가 대졸이상인 경  
우 동일한 소득수준하에서도 월저축액이 중졸이하  
가구에 비해 적었으며, 저축액의 차이는 83,36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저축율, 저축보유액 및  
純저축보유액은 가구주 교육정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구가 안고 있는 주택문제의 심각성은 가계  
재정운영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  
었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입증되었다.  
주택마련의 희망과 가능성이 보이는 전세가구의 경

우 저축의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월  
저축액의 경우 자가가구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 월세가구 역시도 전세가구보다는 작은 차이이  
나 자가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많은  
저축을 매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저축률도 전세가구는 자가가구에 비해 5.50%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의 주거상태는 가계  
의 저축보유액과는 무관하였는데 이는 일부 자가가  
구가 자산의 형태로 금융자산을 보다 많이 보유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우 주택관련대  
출을 안거나 축적된 금융자산을 주택대금으로 이미  
소비한 경우등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자가가구의  
평균적인 저축보유액은 전세가구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서울거주가구와의 저축규모를 비교한 도시화정도  
변수의 경우 중소도시가구의 월저축액이 서울거주  
구에 비해 20,565원이 더 많았으며 여타 가계저축변  
수는 도시화정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회귀분석 결과 나타난  $\beta$ -값을 통하여 각  
가구특성변수들이 가계저축규모에 미치는 영향력 정  
도를 정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계소득의 가  
계저축에 대한 영향력이 쉰가계저축규모변수에 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월저축액은 가  
계소득변수의  $\beta$ -값이 0.8810으로 두 변수간의 연관  
성이 가장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월  
저축액과 평균저축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계소득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원수가 많  
아짐에 따라 요구되는 소비지출의 부담이 저축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의미한다.

〈표 4〉 가계저축규모에 대한 가구특성별 연관정도 비교: 회귀분석 결과( $\beta$ -값)

순서	월저축액		평균저축률		저축보유액		純저축보유액	
1	가계소득	(0.8810)	가계소득	(0.4374)	가계소득	(0.7040)	가계소득	(0.6023)
2	가구원수	(0.0860)	가계소득 <sup>2</sup>	(0.2718)	가구주연령 <sup>2</sup>	(0.3979)	가구주연령 <sup>2</sup>	(0.4298)
3	대졸이상	(0.0757)	가구원수	(0.1574)	가구주연령	(0.3445)	가구주연령	(0.3616)
4	50대	(0.0584)	50대	(0.1085)	가계소득 <sup>2</sup>	(0.2640)	가계소득 <sup>2</sup>	(0.1950)
5	전세	(0.0462)	전세	(0.0926)	취업자 $\geq 2$	(0.0639)	취업자 $\geq 2$	(0.0489)
6	40대	(0.0448)	40대	(0.0891)	자유직	(0.0393)	가구원수	(0.0402)

가구주 연령 및 연령제곱변수가 가계의 저축보유 관련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값이 0.3이 넘는 수치를 보였다. 또한 가구의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가변수는 저축보유액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자수가 2인이상인 가구의 경우 축적된 자산이 부족한 데 따라 안정된 가계재정확보를 위한 취업에의 욕구가 보다 절실했기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유액의 소득계층간 격차가 더욱 커서 가계소득 48만원인 가계의 純저축보유액은 674,685원으로 월가계소득 150만원 가계의 월저축액보다 적었다. 이들 150만원 소득의 가계는 純저축보유액이 12,618,766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가계저축규모에 대한 결정요인을 가구특성을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 4. 가계소득별 가계저축규모 추정(〈표 5〉 참조)

〈표 5〉 가계소득별 가계저축규모 추정치

(단위: 원, %)

월평균 가계소득	월저축액	평균저축률	저축보유액	純저축보유액
48만원	91,751 (1.00)	26.6 (1.00)	2,167,687 (1.00)	674,685 (1.00)
60만원	163,731 (1.78)	28.5 (1.07)	3,798,637 (1.75)	2,104,803 (3.12)
80만원	283,791 (3.09)	31.7 (1.19)	6,497,230 (3.00)	4,473,497 (6.63)
100만원	404,015 (4.40)	34.8 (1.31)	9,171,194 (4.23)	6,824,522(10.12)
120만원	524,308 (5.71)	37.8 (1.42)	11,820,639 (5.45)	9,156,128(13.57)
150만원	704,967 (9.68)	42.3 (1.59)	15,748,731 (7.27)	12,618,766(18.70)
전체가구	289,589	31.8	6,625,754	4,587,308

- 1) 월평균가계소득은 5분위로 하여 1분위(48만원까지), 2분위(60만원까지), 3분위(80만원까지), 4분위(100만원까지)의 최대값을 가계저축규모 추정식에 대입하였으며, 100만원이상인 5분위의 경우 특정치인 120만원과 150만원을 임의로 선정, 산출하였음.
- 2) 괄호안의 수치는 가계소득 48만원이하 가구의 규모를 1.00으로 하였을때의 수치임.

가계소득별 가계저축규모의 추정치는 〈표 3〉의 가계저축의 추정식에 모든 변수의 평균수치를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가구원수의 경우 평균 가구원수인 4.21을, 각 더미변수들의 경우는 각 집단의 구성비를 각각 대입하였다. 그 결과 월저축액은 289,589원이었으며, 평균저축률은 31.8%, 저축보유액은 6,625,754원, 純저축보유액은 4,587,308로 각각 추정되었다.

하위 20% 소득집단인 월가계소득 48만원이하 가구의 경우 월저축액은 91,751원으로 월가계소득 150만원 가구의 704,967원의 1/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평균저축률의 수준은 상위40% 가계소득집단인 월소득 100만원 이상인 가계에서 평균저축률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의 부채부담이 높음에 따라 부채부분을 제외한 純저축보

유액을 이용하여 1990년도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가계저축규모변수로 월저축액, 평균저축률, 저축보유액, 純저축보유액등 4개의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가구특성변수로는 가계소득, 가구원수, 취업자수, 가구주 연령, 직업, 교육정도, 주거상태, 도시화정도등이 사용되었다. 연구목적에 위하여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가계저축규모변수를 종속변수로, 가계소득 및 가구특성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주요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가계는 평균적으로 가계소득의 31.8%를 저축하며, 이때 월저축액은 290,759원이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축보유액은 평균 6,483,656원이었으며, 여기에서 부채를 제외한 純저축보유액은 가구당 4,482,47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가구특성별 각 집단간의 저축규모를 단순비교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고려되어진 대부분의 가구특성 변수에 대해 가계저축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소득수준에 따라 가계저축규모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 밖에도 가계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인 취업자수, 가구주직업 및 교육정도가 달라짐에 따른 가계저축규모의 변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가계저축규모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타 가구특성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가계소득수준이 추가저축규모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가구원수 또한 모든 가계저축규모 변수와 負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가 2인 이상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평균저축률은 높았으나 저축보유액은 적었으며, 월저축액과 평균저축률은 40대, 50대가구에서 적고 저축보유액은 30대말에서 최저치를 보인 후 계속해서 증가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평균저축률이 봉급생활자가구에 비해 낮았으며, 자유직가구의 저축보유액은 봉급생활자가구에 비해 높았다. 가구주 교육정도와 가계저축규모와는 여타 설명변수에 비해 관련이 적은 편이었고, 월저축액의 경우 대졸이상가구가 국졸이하 가구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구는 자가가구에 비해 월저축액과 평균저축률이 높았고, 월저축액의 경우 월세가구도 자가가구에 비해 많았다. 또한 중소도시 거주 가구는 서울거주 가구에 비해 월저축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특성은 가계저축규모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나타났다. 이는 최근 가계대상의 금융상품개발이 가구특성에 의해 세분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동시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가계저축규모를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각 가구특성에 따른 적정가계저축규모 산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 평균저축률과 저축보유액의 경우 월저축액의 경우와 비교하여  $R^2$ 값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두 저축규모변수의 경우 가계소득만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며, 가계소득보다는 가계자산의 규모에 의해 보다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原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가계자산규모변수를 가능성있는 결정요인으로 고려할 수 없었던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세째, 가구원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가계저축 및 월평균저축액이 적을 뿐 아니라, 저축보유액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양육중인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수가 가계경제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인 가계운영계획수립시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부양가족수의 고려가 필연적임을 암시하며, 정부의 빈곤가정 선정기준 및 보조방식 또한 절대적 경제상태외에 가구원수의 고려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네째, 취업자수가 2인이상인 가구는 1인가구와 비교되는 저축행태를 보였다. 3인이상 취업자 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률을 보였는데, 이는 이들 가구가 주택마련등의 특정 재정목표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취업주부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할 때 이들의 높은 저축성향이 보다 효율적인 가계재정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주부대상의 자산운용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요망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가계의 재정상태에 간접적으로 반영된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가계의 저축율은 급격히 떨어지는데 가계재정의 장기계획수립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여섯째, 직업에 따른 가계저축규모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가계소득과 가계저축규모와의 밀접한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 볼 때 가계소득의 양은 가계저축규모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업유형에서 결과되는 가계소득의 안정성여부는 그렇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

한 이러한 결과는 금융기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수의 저축상품들이 일정하고 안정된 수입원을 가지는 보급생활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개선의 여지를 안겨준다 할 수 있다. 즉 불안정적 소득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저축유인상품의 개발이 촉구된다.

일곱째, 전세가구의 월저축액 및 평균저축률은 他 그룹에 비해 큰 폭의 우위수치를 보임으로써 주택소유여부가 가계재정상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주택관련저축상품의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월세가구의 저축성향이 전세가구에 비해 적게 나타남으로써 이들의 주택장만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장기주택마련상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계저축의 결정요인에 관한 미시적 분석연구는 연구의 중요성에 비하여 양적인 면에서 부족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계저축의 주요변수로 예측되는 가계자산과 경제전망등의 주관적 변수를 포함하는 자료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보다 정교한 가계저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민은행(1991),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 1990년도」.
- 2) 백설희(1983), “도시가계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양세정, 강미나(1993), 「가계금융이용실태에 관한 종합적 분석」, 국민가계경제연구소.
- 4) 양세정, 이성민(1992), 「가계소비지출 및 저축행태분석을 통한 건전가계경제구조 창출방안」, 국민가계경제연구소.
- 5) 양정선(1991), “체계론에 기초한 도시가계의 저축 및 투자행동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이계식(1986), “도시가계의 저축행태 분석,” 한국개발연구, 8(4), 16-40.
- 7) 이명훈(1985),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저축행태분석,” 조사통계월보(한국은행), 8월호, 31-50.
- 8) 채정숙(1980), “주부들의 저축행태에 관한 연구—대구시 가구를 중심으로—,” 한사전문대 논문집, 5, 62-86.
- 9) Bryant, K. (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10) Bryant, K. (1986), “Assets and debts in a consumer portfolio,”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0(1), 19-35.
- 11) Ferber, R. (1973), “Consumer economics,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1, 1303-1342.
- 12) Hafstrom, J. & Dunsing, M. (1972), “Satisfaction and education: A new approach to understanding consumption patter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 4-12.
- 13) Hefferan, C. (1982), “Determinants and patterns of family sav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1), 47-55.
- 14) Hefferan, C. (1979), “Saving behavior in multiple earner families,” Proceedings of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 25, 177-178.